

제24대 노동부장관 취임식



임태희 신임 노동부 장관은 2009년 10월 1일 과천정부종합 청사에서 장관 취임식을 갖고, '복수노조 허용' 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는 글로벌 경쟁시대의 핵심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종 플루예방, 이제 안전한 방역마스크로 골라 쓰세요”

– 산업안전보건공단, 국내 처음 방역마스크 품질검사기관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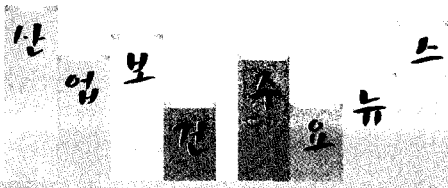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보호구인 “방역용 마스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최근 방역용마스크 품질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험 시설 및 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방역용 마스크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10. 14) 받았다. 국내 방역용 마스크 품질검사기관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방역용 마스크는 성능에 대한 확인 없이 시중에 유통되어 왔으나 이번에 공단이 방역용 마스크에 대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단의 품질검사를 받아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 “방역용 마스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방역용 마스크 제조업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공단에서 실시하는, 분진 포집 효율 시험(투과율), 안면부 누설율 시험(내부 차단율), 흡기저항 시험(호흡 편의성), 인장 강도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식약청으로부터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방역용 마스크의 성능기준은 산업용 여과식 방진마스크 1급에 상당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참고로 황사마스크 성능 기준은 산업용 여과식 방진 마스크 2급에 상당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방역용 마스크 품질검사 지정은 올해 8월 식약청이 방역용 마스크에 대한 시험 능력과 설비 능력을 갖춘 시험기관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지정신청을 요청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3월 식약청으로부터 국내 최초 황사 마스크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공단은 1989년부터 국내에서 산업용 방진마스크 시험을 수행해 온 유일한 공공시험기관으로 마스크 시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의 지속적 유행에 따라 국내 방역용 마스크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공단은 방역용 마스크 품질기관으로 지정됨으로 연간 약 150여건의 방역용 마스크 시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방역용 마스크 품질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에 필요한 방역용 마스크의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개 서비스 산업 업종별 자료 보급 등 중점 추진

음식 조리나 배달, 청소, 건물이나 아파트 관리 등의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자료가 보급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자료를 제작, 관련 사업장에 보급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자료는 포스터, 스티커, 팸플릿, 근로자 교육용 자료 1백 2십 7만 부로 서비스 산업 업종 중 재해다발 6개 업종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이다.

포스터와 스티커는 사업장에 부착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팸플릿과 근로자 교육용 자료는 재해발생 현황과 예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6개 서비스 산업 업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고층건물 등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으로,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 산업에서 총 30,16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서비스 산업 전체 19개 업종 중 6개 서비스 산업 업종에서 23,711명(78.6%)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번에 제작, 보급하는 자료를 관련 단체와 협회를 통해 제공하는 한편, 사업장 방문기술 지원 시에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에서 활용을 원할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의 '신간자료' 코너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재해자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로 2004년 22,589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30,16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